

## 외래 잡초 발생 및 방제전략(5)

# 어저귀

(velvet leaf)

어저귀는 사료용 곡물 수입시 혼입되어 사료작물 포장 중 옥수수밭에서 많이 발생된다. 효과적인 방제법은 토양처리제와 경엽처리제로 처리하여 밀도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어저귀(학명 : *Abutilon theophrasti*, 영명 : velvet leaf)는 인도지역이 원산지인 일년생 외래잡초이다. 당초 어저귀는 섬유작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방 전에 널리 재배되었으나 인조섬유 등에 밀리어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축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사료용 곡물이 대량 수입될 때 혼입되어 사료작물 포장 특히 옥수수밭에서 많이 발생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개 150cm정도 자라는 대형식물로 작물과 양분 및 광경합을 하여 옥수수의 수량 및 품질은 크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성장하면 줄기의 직경이 2cm에 달하고 섬유질이 강하여 기계수확작업에 지장을 초래한다. 또한 어저귀의 잎이나 줄기를 으개졌을 때에는 특유의 악취가 발생되어 가축이 섭식을 기피하며, 젖소가 먹었을 때는 우유에서도 냄새를 풍기며 또한 담근먹이



이인용  
농촌진흥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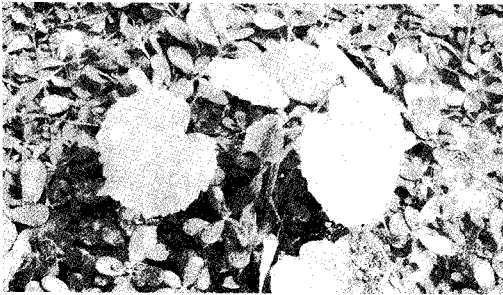
(사일리지) 제조할 때 혼입되면 담근먹이의 기호성을 떨어뜨리는 등 낙농가에게 피해를 준다.

이런 어저귀는 줄기는 둥글고 직립형이며, 가지가 많고 식물체 전체에 아주 작은 솜털로 덮여 있으며, 노란색의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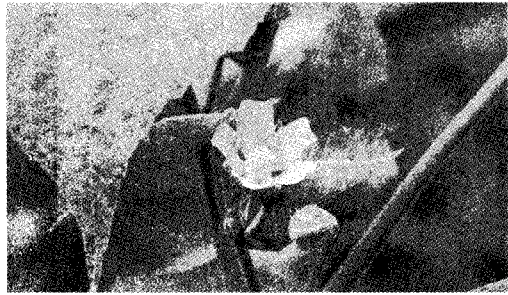
이 7~8월경에 핀다. 8~9월에 성숙한 어저귀는 1주당 1,000~2,000개 정도의 종자를 생산하여 급속도로 확산되는 외래잡초이다.

어저귀는 수입곡물이 처리되는 항만의 야적장, 사료공장, 사료작물 재배포장을 비롯하여 축사주변, 가축배설물 퇴비가 살포된 포장에서 발생되며 낙곡으로 인하여 도로변, 과수원, 초지, 공한지 등에서도 자란다.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 대도시 주변 사료작물 포장에서 10a당 어저귀의 발생정도가 높는데 이것은 축산농가가 많을 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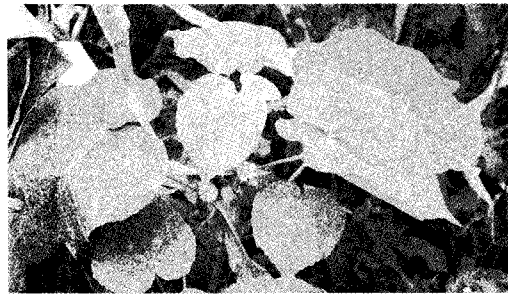
생육초기



어저귀 꽃

아니라 사료용 옥수수 재배포장이 대면적이고 농가에서도 담근먹이용으로 사용되는 관계로 늦게 예취하여 어저귀 종자가 탈립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충남, 전남북은 대부분 청예사로 이용되는 관계로 일찍 예취하기 때문에 어저귀 확산정도가 낮아 발생정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생육중기

옥수수밭에 발생하는 어저귀는 토양처리제와 경엽처리제를 잘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밀도를 줄여 나갈 수 있다. 즉 토양처리제인 펜디메탈린유제, 리뉴론수화제 및 리뉴론·펜디메탈린유제를 옥수수 파종복토 후 10일경에 처리하면 옥수수에 약간의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어저귀만은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파종일 : 4월 29일, 수원). 대부분의 토양처리제는 파종복토 후 5일 이내에 사용하게 되었으나 옥수수 밭에서는 어저귀가 먼저 발아하는 관계로 어저귀의 딱잎이 출현되었을 때 약제를 처리하면 어저귀만 방제될 수 있다. 옥수수

표 1. 토양처리제에 의한 옥수수밭 어저귀 방제효과

약제명	유효성분(%)	살포량(g)	처리시기	방제효과(%) <sup>a)</sup>
펜디메탈린유제	31.7	300ml	파종 후 10일경	95
리뉴론수화제	50.0	150g		91
리뉴론·펜디메탈린유제	25.0	500ml		89

a) 약해정도 : 1~2, \* 옥수수 파종시기 : 4월 29일(수원)

파종시기가 5월 초·중순이후로 늦추어 질 경우에는 어저귀와 옥수수의 발아상태를 보고 약제를 처리하여야 옥수수에 약해발생을 줄일 수 있다.

경엽처리제로는 디캄바액제가 효과적이다. 그러나 디캄바액제는 토양중 이동성이 높고 바람에 비산되어 다른 광엽작물에 접촉되면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초제 살포시 유의하여야 한다. Y